

“새롭게 디자인 평생 과업”



신라문화원이 진행하는 문화유산돌봄이 사업.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큰 효과를 보게됐다.



진병길 원장이 기획 후 고궁야간투어 등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신라달빛여행



어린이 문화학교 참가 학생들이 경주 남산의 불상을 보고 있다.



추억의경주수학여행 참가자들의 모습. 교복을 입고 불국사·석굴암 등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1993년 신라문화원 개원당시 모습. 왼쪽이 해국 스님, 오른쪽 고청 윤경렬 선생과 오른쪽 두 번째가 진병길 원장.

에는 약 3000여 불자들이 참석합니다. 경주에서는 꽤 큰 규모예요. 좋은 점은 이러한 자리가 불자네트워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회 이후 사람들이 모여 순례 등을 이야기하고 대소사에도 그 모임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진 원장은 “지역별로 문화기획 연출가 양성하고 지역민의 의식변화 선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회도 과감히 외부에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이어 필요하다면 이웃종교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현재 월암재, 서약서원, 도봉2사당, 종오정, 독락당 등 고택을 활용해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 하고 있다.

진 원장은 “지금은 활성화된 고택체험의 초기 붐을 조성했다고 자부한다”며 “고택 체험과 함께 불교 순례 프로그램도 진행돼 자연스럽게 불교를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원장은 경주지역 택시기사들을 위한 문화관광해설 강좌도 예를 들며 문화포교에는 정형화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대면하는 택시기사들이 경주의 문화를 소개하며, 특히 불교문화를 제대로 소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알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더욱 불교문화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굳이 템플스테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

다. 불교문화를 콘텐츠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열린 자세로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불자가 아닌 이들이 보다 편하게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진 원장은 재가불자들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사람이 불교문화를 전합니다. 문화재 보존도 사람이 합니다. 사람들의 힘이 모아야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습니다. 보통 불교활동가들은 스님들을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구심점으로 모시고, 힘을 모을 때 불교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속적인 활동 나설 것

22년째를 맞은 신라문화원과 진병길 원장은 또 다른 미래를 준비 하고 있다. 사회공헌 사업이 그것이다.

진 원장은 신라문화원이 하는 사업 중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시니어클럽 운영’이라고 말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든 것이다. 문화유산 해설사와 숲 해설사를 양성해 사찰을 비롯한 문화유산 곳곳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또 문화유산돌봄이 제도로 어르신들이 문화재를 관리토록 했다. 이처럼 신라문화원은 3곳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 5개 기관에 직원 65명과 7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창출했다.

“민간단체로서 20년을 지속해 온 단체는 거의 없는데

다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재를 활용, 보존하는데 기여 하고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10년간은 불교와 복지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걸음마 단계, 이후 10년은 시니어 클럽, 문화재돌봄이 사업 등의 안정화 단계였습니다. 이제 는 사회공헌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진 원장은 “현대 사회에서 종교인구는 줄고 있으며, 이는 먼 미래에 불교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있는 만큼 불교의 미래를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또 “사회공헌 사업도 한국전통과 불교문화를 활용한다면 보다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장 먼저 국민들이 문화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전국에서 불교대중화와 문화발전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1천 여명의 후원회원과 65명의 직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 경주는 물론 우리나라 문화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시민문화단체가 되도록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물질문명이 발달할수록 정신문화가 살아있는 불교의 보고, 경주의 진가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경주이기에 미래세대까지 우리의 문화유산을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힘 닿는 데 까지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아이들 절에 오게 만들자

충남 예산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살던 어린 시절, 나는 어려서부터 모친의 손에 이끌려 절에 자주 갔었다.

초파일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절에 가서 등도 달고 비빔밥도 맛나게 먹었다. 10살이 되던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는 방학 때마다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향천사 어린이 불교학교에 다녔다.

읍내에 사는 포래의 아이들과도 금방 친해져서 절에 가는 날이 기다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절에 가는 날이 기다려졌던 것은 절에 가면 재미있는 손오공 비디오투와 맛있는 떡 접시가 나를 반겨 주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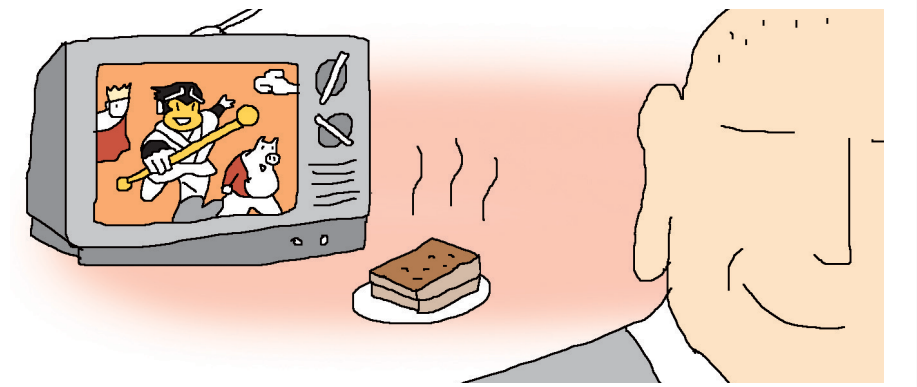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린이 불교학교를 다녔지만 이후 학창시절에는

는 약속대로 붉은색 양장본으로 된 묘법연화경을 선물로 받았다. 선물로 받은 경전을 품에 안고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이듬해 불교교양대학에 다시 들어가 스님과 의논 끝에 졸업하던 날 출가를 했다.

요즘 불교계 전반에서 젊은 불자들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실제로 절에 오는 아이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

전국의 어린이집은 4만 6000여 곳, 이중 불교계가 운영하는 곳은 채 100곳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다. 큰 사찰에서는 굳이 어린이포교에 신경쓰지 않아도 운영이 되니 관심이 부족하고, 작은 사찰은 사찰운영도 빠듯하니 이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

아이들이 절에 받을 들이기까지는 어



그림·박구원

절에 자주 가지 못했다. 군대생활을 할 때 종교행사시간이 되면 법당에 갔다. 신생활을 하기 보다는 어려서부터 다녔던 곳이라서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전역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는 이별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상처를 잊기 위해 취하도록 술을 마셔보기도 했지만 마음은 물론 몸까지 더욱 황폐해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 불교교양대학 신입생 모집 현수막을 보게 되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어려서 다니던 절의 풍경이었다. 어린이 불교학교에 다니면서 외웠던 반야심경이나 스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잊혀지고 말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모여 앉아 깔깔거리며 보던 손오공 비디오투와 맛있는 떡 접시만은 여제 일처럼 선명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 바로 절에 찾아가다. 대부분 노보살님들과 몇몇 거사님들이 계셨고 20대 젊은이는 나 혼자였지만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었다.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에게 두꺼운 경전을 선물하겠다는 스님의 말씀에 정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업에 참여했고, 졸업할 때

른 불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휴일 나들이로 놀이동산이나 영화관도 좋겠지만 천년을 넘게 이어온 불교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아이가 확 달라지지는 어렵겠지만 커다란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비롯되었듯이 어린시절에 경험하는 신생활은 성인이 되어 겪게 되는 괴로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반드시 큰 힘이 될 것이다.

종단에서는 이미 다양한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어린이 전법도량을 신설하는 등 많은 스님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도 광주시에 있는 포교당에서 온 가족이 참여하는 음악회법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참여형 신행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기를 기대해본다.

수안 스님 (前 백양사 포교국장)

JJUN Heating System Module

“**전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발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강남 : 010-5097-8291
울산 : 010-4597-5577
평창 : 010-6433-8612
제주도 : 010-3000-1945

익산 : 010-6610-2337
양산 : 010-6294-6126
수원 : 010-5211-7260

광주 : 010-6890-0365
진주 : 010-3583-7139
남양주 : 010-9183-9729

사찰 연등 및 전선(범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동간격·규격원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 인치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앵글 용품

일자형 S형 T면리형

LED배선형 LED홀더형 전선지 초

▶방생, 탐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